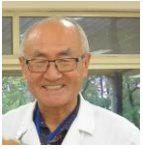


에티오피아 명성병원의 봉사를 마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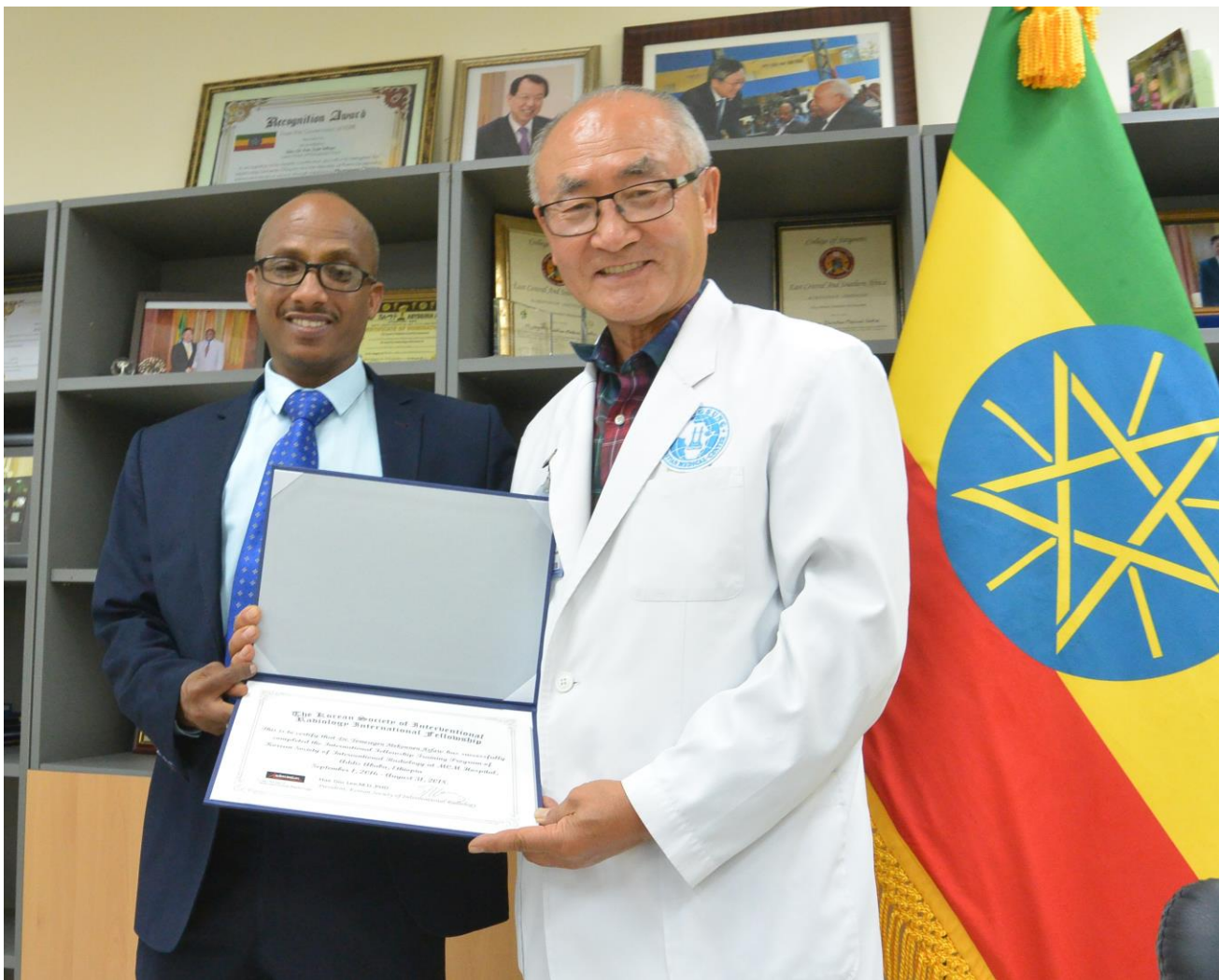


홍건(70년 졸업)

시카고 근교에 있는 Little Company of Mary Hospital 이라는 곳에서 34년간 봉직을 마치고 은퇴하자마자, 2013년 8월에 에티오피아 명성병원에 도착하였으니까 그동안 만 5년을 아프리카 낯선 땅에서 지낸 셈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20여년 동안 여러 나라를 휴가를 이용하여 한번에 2-4주씩 동안 단기 봉사를 다니면서 외국의 선교병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알았고, 또 명성병원은 9년전에 잠시 방문한적이 있어서 대강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간 곳이지만, 막상 장기로 사역을 결정하고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떠날 때에는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더우기 떠나기 전에 어느 미국 기관의 의사가 "명성병원은 선교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너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경고와 격려의 말을 해 줄때는 나도 모르게 걱정되는 마음이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도착하여보니 미국에서 간 의사들이 주일날 병원내에서 영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멀리 떨어진 성공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주중에도 기도회나 예배드리는 기회가 없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 병원을 다녀간 미국 의사들이 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마침 한국에서 일년을 가족들과 함께 큰 마음을 먹고 봉사하러 온 영상의학과 Dr. Y 라는 젊은 의사분이 현지인 의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병원에서 관독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간신히 Intervention 하는 환자만 보고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을 보고 심각한 문제로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봉사하면서 공여 할 수 있는 가를 고민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일년에 한두번씩 와서 일주일 동안 Intervention 하는 Dr 조 라는 분에게 떼를 쓰다시피 부탁을하여 그분이 근무하는 I 병원에 가서 석달 동안 병원 앞에 먹자골목안에 있는 원룸을 빌려서 기숙하면서 레지던트 할 때 몇본 해본 후 30년 이상 해보지 않았던 Intervention 을 배우고 돌아와서 쉬운 환자부터 시술을 시작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하고 합병증으로 배에 고름이 고여 온 환자로 부터 시작하여 차츰 크기가 작은 환부를 수술하지 않고 뽑아내는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70 이 넘어서 하지 않던 시술을 배워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에티오피아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환자들을 돌보아 준다는 사명감으로 어렵지만 조금씩 경험을 쌓아 가면서 힘든 케이스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스스로의 짧은 기간동안 배운 실력의 한계를 느끼고 한국에 가서 수련을 받는 동안 인터벤션 학회도 참석하면서 인연을 맺게된 여러 교수님들을 초대하여 정식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2년짜리 Intervention Fellowship 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서울의대 후배 되시는 박재형 교수님이 한국 인터벤션 학회의 대부역할을 하시는 초창기 창립 멤버이신데 발벗고 나서서 도와 주신 힘을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대학의 10 명의 Intervention 전문

교수님들이 매달 한 분씩 오셔서 한 주일씩을 봉사하시고 가지게 되었고, 우리 병원의 현지인 의사 두명과 St Paul 이라는 국립의대 병원의 의사 3 명을 포함하여 5 명이 지난 2 년 동안 꾸준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시는 교수님들이 St Paul 병원을 통하여 항공편 비행기표를 지원을 받았고 저희 병원 숙소에서 지내면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시술을 직접하시고 수련의들이 관찰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현지인 의사들이 직접 시술을 하게 함으로서, 미국이나 한국에 연수 받으러 오는 경우 피부색이 다른 의사가 환자를 직접 다룰수 없으나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의사가 바늘로 찌르고 시술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쉽게 배우고 가르킬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8 월 15 일 5 명의 첫 졸업식을 갖고 수료증서를 전달하였고, 앞으로 새로운 분야를 이끌어 나갈 에티오피아의 인터벤션 학회도 창립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보고 Cardiac Intervention (심장내과) 에서도 매달은 안되도 석달에 한번씩 교수님들이 오시고 가르키는 것을 시작하여 심근경색 환자들에게 풍선시술 (angioplasty) 과 stent 를 넣고 생명을 살리고 현지인 심장내과 의사를 가르키는 프로그램도 시작 되었습니다.

마침 병원내에 에티오피아 정부의 요청으로 문을 열게 된 명성의과대학에서 현지인 의사들이 꺼리는 강의를 맡게 되어 1 학년 class 부터 Introduction 강의부터 해부학 시간에 필요한 강의를 하게 되어, 미국에서는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community 병원에서 관독만 하면서 지내던 사람이 책을 드려다 보고 준비를 하여 강의용 슬라이드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그때 그때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3 학년이 되자 병원으로 임상 실습을 나오게 되었는데 현지인 의사들을 몰아놓고 앞으로 당신들이 의대생을 가르켜야 된다고 하니, 자기들은 환자들 보라고 취직을 했지 학생들을 가르킬 능력이 없다는 등 자격이 없다고 핑계를 대므로, 할수 없이 병원에서 자원해서 가르키는 의사들에게는 과외로 돈을 더 주겠다고 하니, 금방 자세를 바꾸어 너도 나도 하겠다고 나서서 참 쓴 웃음을 지으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맡은 3 주 동안에 영상의학과 모든 분야의 과목을 가르켜야 하므로 우리과의 의사들이 주저하므로, 미국에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친구들을 동원하여 세 명이 와서 한 주일씩 돌아가면서 신경과, 가슴, 복부, 초음파, CT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모든 분야를 가르키고, 그 다음해 부터는 미국 의사분들이 미리 준비해준 강의 자료를 사용하여 현지인 의사들에게 강의를 하게 하고 저들이 맡지 않는 분야를 제가 맡아서 강의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의대생들이 우리 과에 와서 3 주일씩 임상실습을 배우게 되어 현지인 의사들에게 두세 명씩 맡아서 관독하는데 학생들이 옆에 앉아서 보게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서 가르키게 하고, 학생들이 초음파를 직접 스캔을 하면서 환자를 진단하는 단계까지 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 학생에게 미리 중요한 제목들을 나누어 주어서 세미나를 준비하게 시키고 발표하는날 질문도 하였습니다. 생각 보다 모두들 진지하게 준비하고 열심을 보이는 것이 대견하였습니다. 3 주일의 실습이 끝나날 필기 시험을 보고 곧 이어서 구두시험을 보는데 미국의 전문의 시험을 보듯이 케이스들을 컴퓨터에 올려놓고 차례대로 사진에 나와있는 소견을 찾아서 말로 설명하게 하고 그에 따른 진단을 올바르게 맞추어 내게 함으로써 과연 우리들의 3 주동안의 교육이 제대로 전달 되었나를 확인하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여러해를 거듭하는 동안 우리과의 현지인 의사들도 가르키는 실력이 나아지고 제가 없어도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명성의대의 문을 열은지 6 년의 기간이 흘러서 처음 입학한 학생들 23 명 중에 여러가지 이유로 중간에 탈락된 학생들을 제외하고 12 명이 지난 8 월 25 일 역사적인 첫 졸업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가르킨 제자들의 졸업식을 참석하여 감회가 깊었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고 앞으로 에티오피아의 의료계의 좋은 지도자들이 되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12 명의 졸업생들을 물어본 결과 우리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개설해 주면 지원하겠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겨우 한명만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11 명은 다른 병원에 가서 전문의 교육을 받겠다고 함으로

우리들이 그동안 가르킨 과정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되돌이켜 보면 처음 이곳을 에티오피아에 왔을때 의대생만 가르키는 것으로 불충분해서 영상의학과에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해야 겠다고 절실히 느끼고 원장에게 상의한 후에 열심히 준비하여 2014년에 정부의 Higher Education 이라는 기관에 레지던트 과정 신설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 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정부의 관리들과 아디스아바바 의과대학의 영상의학과 아스파 교수가 우리의 application 요청을 검토하러 인터뷰를 나왔습니다. Dr 아스파가 에티오피아의 좀더 많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 병원의 여러 좋은 기계들과 의료진의 구성으로 보아 레지던트 과정을 조속히 신설하여 좋은 전문의 들을 교육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고무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병원의 시설을 둘러 보고 나서 몇가지 건의 내지는 보완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우선 레지던트들이 앉아서 설 공간이 필요 하고, 매일 세미나와 교육을 할 방이 따로 있어야 하고, 또 도서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영상의학과에 관계된 교과서를 구입하여 공부할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오는 기회에 필요한 교과서는 구입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조금 더 강력히 밀고 가서 매일 한국에서 오는 컨테이너를 두개 정도 비운 후에 뒷마당에 전기를 설치하고 교실이라고 하고 추진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당시 병원의 좁은 공간 때문에 우리 영상의학과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위해서 방을 줄 수가 없다고 하여, 영상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을 연기/포기 한다는 원장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종내 아쉽습니다. 만일 4년전에 병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밀고 나갔더라면 지금쯤은 첫번 뽑은 수련의가 레지던트 과정을 이미 마치고 스태프로 남아서 후학을 같이 가르키게 되고 이번 졸업생들 중에 제일 우수한 학생을 스카웃 해서 영상의학과 레지던트로 뽑지 않았을까 하고 아쉬워 할 뿐입니다. 항상 뒤를 돌아다 보면 지난날의 결정의 후회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 병원에 올때 부터 선교 병원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애를 쓰면서 제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선 주일에 입원환우들과 방문하는 가족들을 위한 예배를 아침

11 시에 병원 로비에 마련하고 영어로 설교하고 현지어로 통역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미국에서 방문하는 의사들 중에 가능한 분들에게는 설교도 하게하고 같이 예배에 참석 하게 하여 택시를 타고 성공회에 가지 않아도 되게 하였고, 주중에도 매일 과업이 시작하는 시간이 8 시인데 20 분전에 모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매주 목요일은 제가 맡아서 영어로 설교하고 나머지 날은 현지인과 방문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몇명이 모이던 것이 이제는 제법 많은 직원이 모여서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방문하는 아산병원과 명성교회등의 단기의료 선교단원들과 함께 시골을 찾아가서 1-2 주 동안의 이동진료를 매년 참가하였습니다. 초음파 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초음파로 진단을 하여 주고 같이 데리고 간 의대생들에게 현장에서 초음파를 사용하여 진단을 하는 것을 아시켜 주고, 초음파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청진기를 사용하여 다른 일반의사들과 같이 밀려 들어오는 수백명의 환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이동진료를 하였던 것과 차이는 만일 수술로 치유가 가능한 한 환자들은 선별하여 우리 병원으로 오게 하여 수술을 해주고 좋은 follow up 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현지인 목사님들이 부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6-7 시간을 차를 타고 방문하여, 열악한 지방교회에 가서 지도자 강습에 강의를 하고, 주일 예배에 설교를 했으며, 그리고 따로 3-4 천명씩 모이는 특별 집회를 열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시카고를 들러서 연례 건강진찰을 받았는데 담당의사가 혹시 에티오피아에 청소년 축구팀을 아느냐고 물어서 전혀 문외한으로 모른다고 하니 시카고에서 청소년 축구 토너먼트를 갖는데 에티오피아팀을 초청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하고는 좀 안되서 만일 에티오피아 팀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주겠냐고 물으니, 참가비를 면제하고 먹고 재우는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얘기는 해놓고 과연 에티오피아에서 청소년 축구팀을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고민을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안에서 승객들을 둘러보다가 한분이 혹시나하여 가까이 가서 나를 먼저 소개하고 도움을 청하니 나를 뵈러 쳐다 보면서 "당신이 제대로 사람을 보셨습니다" 라고 하기에 내가 놀래서 그것이 무슨 말씀이요 하고 그 옆에 빈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스포츠 기자로서 TV 와 신문에 기고를 하는 사람으로 스포츠에 관한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일이 지난후 그분이 소개한 청소년 축구팀의 코치 두명이 우리 병원에 저를 찾아와서 자세한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물론 그후의 진행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미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는데 까지 같이 따라가서 도와주고, 비행기표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 파티에 참석하여 TV 인터뷰도 하고 간신히 떠나기전에 모든 수속을 마쳤습니다. 미국에 처음 오게 된 청소년 선수들은 매 경기마다 졌지만 사기는 떨어지지 않고 마치는 날까지 선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부모들과 코치들이 부탁하여 스웨덴에서 열리는 고티아컵에도 출전하게 주선을 해주고 시카고도 다시 참석하여 좋은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별안간 에티오피아에 동양의사가 한명 나타나서 청소년 축구에 관여하게 되어 일약 유명인사가 되고 여러 팀에서 초청하여 경기에도 참관하는 기회를 가지고 청소년들과 부모들과도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취미가 그림그리는 것이고 보니 에티오피아를 갈 때 모든 화구를 준비해서 가지고 가서 틈이 나는 대로 주로 주말에 게스트하우스 우리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3년동안 모은 그림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아스니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고, 우리 병원의 새 병동이 문을 열었을때는 병원 로비의 벽에다 그림을 전시하고 선을 보였습니다. 그 소문이 서울에 까지 알려지고 명성병원을 지은 명성교회의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특별 기획 전시회로 교회지하실 친교실과 복도에 전시를 하고 곧 이어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 FM 의 배기성 대표님의 배려로 일주일동안 인사동에서도 개인전

전시회를 가질 기회가 있어서 에티오피아에서 그린 풍물과 병원내에서의 수술실 중환자실등의 그림들을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병원내에 봉사자들과 어린이를 가지신분들의 요청으로 토요일 저녁에 그림 교실을 열게 되어 한인봉사자 가족은 물론 미국에서 단기로 봉사하러 오신 분들, 현지인 간호사, 의과대학생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들이 많을 때는 10명 이상 적으면 3명도 모여서 그림을 가르키게 되었습니다. 참가비를 받지 않고 모든 재료를 마련해주니까 초보인 분들이 평소에 그림을 배우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어서 시작을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아무 스트레스 없이 부담없게 시도하고 그림을 배우고 가르켜 주면서 친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의 살던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많은 짐들을 정리하고 저의 아내는 여름에는 집을 팔기 위해 미국에서 머물면서 떨어져 살았는데 4년만에 드디어 정든 집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겨울에는 아내도 에티오피아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원래 의료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집에서 살림만 하던 아내는 시카고 병원에서 봉사하던 대로 분홍색 smock 유니폼을 입고 병원 정문에 서서 들어오는 환자와 가족들을 영접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인들이 웬 동양 여자가 자동차에서 내리면 문을 열어주고 휠체어를 밀어주고 Good Morning 그리고 May I help you? 를 해주는 것이 이상하고 고마워서 많은 환자들이 반가워 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캔디를 나누어 주고 혹시라도 기다리는 의사가 한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고 와서 불평을 하면 제 아내가 찾아가서 이유를 알아보고 가능하면 환자를 다른 의사가 진찰을 하게 배려해 주는등 세밀한데 까지 신경을 쓰게 되니 정기적으로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을 받으러 오는 환자하고는 가족 같이 친해지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년동안 에티오피아에서 보낸 기간이 저의 일생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라고나 할까 사람 사는 곳에 항상 어려운 일들이 걸든다고, 오랜세월을 시카고에서 살면서 잊어 버렸던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면들이 하나 둘씩 들어나게되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것이 아무일도 아닌듯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뒤늦게 접하면서 부터 그동안의 명성병원의 봉사를 마치고 이제는 조용히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그래도 어렵게 시작한 인터벤션 헬로칩 프로그램을 끝날때 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드디어 5명에게 수료증을 건네주면서 그 감격은 말할수 없었습니다. 일단 명성병원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그동안 20년간 단기로 방문했던 병원들을 하나 둘씩 접촉을 하여 보니 곧 CT 스캐너를 들어 오려고 준비 중인 에집트의 하피병원에서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까지 표현하면서 어서 오라고 환영을 하여 3주를 방문하였고, 또 에티오피아 시골에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6시간 떨어진 소도병원도 2주일을 방문하여 상황을 알기 위해 가보니, 얼른 와달라는 환영과 함께 그병원에서 쓸 수 있는 에티오피아 의사 면허증을 앞으로 5년 유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명성병원에서의 경험과 이제 나이도 생각해서 앞으로는 한병원에서 일년 내내 상주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필요한 곳을 차례대로 방문하여 한번에 3달씩 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젊은 분들이라면 일년내내 있으면서 도와주면 제일 좋겠지만 제 개인 적으로는 3달씩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인터벤션 프로그램도 개발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냥 초음파나 CT 를 사용하여 판독을 해주고 각 병원에 있는 PAACS 외과 레지던트 프로그램이나 (기독교 외과전문의 양성 프로그램) 가정의 Family Medicine 레지던트 과정이 있는 곳에서는 그동안 의대생들을 가르친 경험으로 강의도 하고 교육도 담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혹시나 은퇴하신 동문들 중에 단기 혹은 장기로 봉사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mail 주소는 kuhn_hong@yahoo.com 미국내에서의 핸드폰 전화는 773-682-9059 입니다. 감사합니다.